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Quant Comment

국내외 주간 이익 동향 체크

글로벌 이익 동향 및 실적추정치 상, 하향 종목

미국 및 중국, 한국 위주의 실적 상향 지속. 미국 원유 및 소재, IT, 커뮤니케이션 위주 실적 상향. 특히 애플, MS, 아마존, 램리서치 등은 호실적 및 어닝서프라이즈 기대감으로 실적 상향 지속 유지 중(다만 메타 및 테슬라는 실적 하향 부각)

ASML: 생성형 AI 수요 폭증으로 2025년 4분기 사상 최대 수주(132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매출 전망치를 최대 390억 유로로 상향

Lam Research: AI 전환에 따른 반도체 시장의 강력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2026년에 상당한 연간 성장

KLA: 예상보다 앞당겨진 메모리 고객(DRAM, HBM)들의 장비 투자 확대로 인해 실적 성장

Seagate: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폭증으로 차세대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수요 급증

Texas Instruments: 전기차,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센터향 고효율 전력 반도체(GaN 등) 포트폴리오 확장과 산업용 반도체 수요 증가

Freeport-McMoRan: 구리 펀더멘털의 강화와 영업 레버리지 효과, 강력한 현금 흐름

GE Vernova: AI와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 소비 급증으로 가스터빈 및 전력망 인프라의 공급 부족이 장기화

Lockheed Martin: 지정학적 긴장 지속으로 전투기 및 무기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강력

ServiceNow: 고객들이 실제로 AI 기능을 유료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AI 어시스트 소비가 급증했고, 자체 플랫폼을 통한 내부 효율성 개선

ABB: 전력망 업그레이드와 산업 자동화 수요가 지속되면서 견조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한 실적 성장

글로벌 이익 상향 업종은 **기술하드웨어 & 반도체**(온디바이스, 에지 AI 수요 확대, HBM 및 디램, 낸드 등 공급 부족 등). **원자재 & 복합기업**(구리부족, 금속가격 상승, 공급망 자국 중심 재편으로 설비투자 확대 등). **소비재 & 서비스 그룹**(여행수요 질적 성장, 가치 소비 확산, 생산 자동화 마진 개선 등). **하향 업종**은 독립 발전 및 신재생 에너지(그리드 병목 현상, 신재생에너지 정책 불확실성 등). 무선 통신 서비스(AI 전환 비용 부담, ARPU 정체 등). 내구 소비재(주택 시장 회복 지연, 가계 실질 소매 여력 감소, 관세 등)

실적 추정치 상향 주요 종목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일라이릴리, 삼성전자, ASML, 마스터카드, SK하이닉스, ADM, 램리서치, IBM, RTX, SAP, 린데, 텍사스인스트루먼트, GE버노바, KLA, AT&T, BHP, 암페놀, 리오틴토, 록히드마틴, 프로수스, 코노코필립스, 어드반테스트, 뉴몬트, 서비스나우, HCA헬스케어, 델타일렉트로닉스(대만), BP, 시게이트, 프리포트-맥모란, 글렌코어, GM, 볼보 등

하향 주요 종목은 메타, 테슬라, 엑슨모빌, 루이비통, 머크, 노보노디스크, 인텔, 보잉, 에어버스, 우버, 퀄컴, 히타치, 소프트뱅크, 다나허, 화이자, 허니웰, 유니온퍼시픽, 캐피탈원, 프로그레시브, 샤오미, 컴캐스트, 엔브릿지, 스타벅스, 제네랄다이너믹스, 유나이티드파슬, 미디어텍, 셔윈윌리엄스, 엘러벤스헬스, 메이퇀 등

국내 증시 이익 동향, 실적추정치 상하향 종목, 수급

코스피 4Q25F OP는 82.6조원 (1W -0.4%, 1M +2.2%). **2026E OP**는 564조원 (1W +15.9%, 1M +28.1%, YoY +87%), 실적 상향 급증. **26F OP 상향 업종**은 반도체, 비철금속, 지주회사, 증권, 건강관리장비, 기술하드웨어, 조선. **하향 업종**은 2차전지, 화학, 건자재, 철강, 항공, 호텔레저, 게임, 생보

국내 대형주 리비전 특징주(26F OP)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지난주 실적 서프라이즈 후 실적상향 폭증), HD현대중공업, SK스퀘어, 고려아연, 알테오젠, 미래에셋증권 상향.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포스코퓨처엠, 한미반도체, 크래프톤, 대한항공 하향

4Q25F OP 상향 주요 종목은 HD건설기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엘앤씨바이오, SK스퀘어, 롯데지주, 씨어스테크놀로지, 미래에셋증권, 카카오페이, 고려아연, S-Oil, 알테오젠, 대덕전자, HD현대중공업, 한화엔진, 한전기술, HD현대마린엔진, 비에이치아이, 한화비전, LS ELECTRIC, 삼성전기, 쎄트렉아이, 고영, SK바이오팜, 키움증권, 엔씨소프트, 두산, 삼성중공업, ISC, 한국금융지주, CJ,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한국항공우주, 삼성물산, 하이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외국인은 강한 매도 전환, 대형주 및 고배당, 가치주 매도. 외국인 순매수는 코스피 -2.4조원, 코스닥 +8,200억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은 화학, 건설, 상호미디어, 소프트웨어, 유통. **순매도 상위 업종**은 철강, 기계, 자동차, 건강관리장비

연기금은 중형주 위주 매도세, 가치주 매도. 연기금 순매수는 코스피 -4,700억원, 코스닥 +3,500억원. **연기금 순매수 상위 업종**은 비철금속, 가구, 상사, 통신, 증권. **순매도 상위 업종**은 조선, 자동차, 유틸리티, 디스플레이, 가전

금주 주요 일정 (경제지표 및 실적발표)

2.2일(월)

미국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1월) / 팔란티어, 월트디즈니, NXP세미컨덕터즈, 제일기획

3일(화)

미국 ISM제조업구매자지수(1월), 노동부JOLTS(12월) / AMD, 머크, 펩시코, 암젠, 화이자, 이튼, SK바이오사이언스, LX하우시스, 호텔신라, 한온시스템, 하나투어

4일(수)

미국 ADP비농업부문고용변화(1월), 서비스구매관리자지수, ISM비제조업구매자지수 / 알파벳, 일라이릴리, 애브비, 노바티스, 노보노디스크, 우버테크, 퀄컴, 보스턴사이언티픽, Arm, 롯데케미칼, 카카오뱅크, 키움증권, 현대건설, 한화오션, 풍산

5일(목)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 아마존, 쉘, 린데, KB금융, KCC, LG, 기업은행, 넷마블, 신한지주,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한국항공우주, 한미약품, 한화비전, 한화솔루션

6일(금)

미국 시간당임금, 비농업고용지수(1월), 실업률(1월) / 아모레퍼시픽, GS건설, NAVER, 한화시스템, 카카오페이

Quant Comment

지난 주말 비교적 큰 폭의 안전선호 관찰, 상위 0.1% 수준, 금요일 하루 기준, 금가격 -11.4%, VIX +3.3%, 필라델피아반도체 -3.9%, 달러인덱스 +0.74%, 신흥시장채권가산금리 +1.9% 등

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으로 지난주부터 매도세였던 외인 수급 더욱 부담이 될 전망

다만 최근 국내 개인들의 코스피 및 코스닥 관련 ETF에 하루 평균 각각 +1조원 규모의 순매수 지속, 외인 매도에 대한 주가 방어력은 어느 때보다 클 것

게다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후 올해 영업이익 컨센 98조원에서 139조원으로 폭증(삼성전자 역시 120조원에서 158조원으로 상향)

전 세계 중 가장 압도적인 실적모멘텀과 이로 인해 낮아진 선행 PER 8.8배로 국내 증시에 대한 눌림목 활용 전략 유의미

반도체 실적발표 후 컨센서스 공백기에서 시장 상승세의 속도는 분명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시장 급등 후폭풍 속에서 저평가 실적주에 대한 알파 전략 유효